

젠더와 ‘일기문학’이라는 양식

- 10세기 후반 일본의 『가게로 일기(蜻蛉日記)』를 중심으로 -

이미숙*

차례

1. ‘일기문학’의 두 요소, 여성과 가나 문자
2. 남성의 한문 ‘일기’와 여성의 가나 ‘일기문학’
3. ‘일기’라는 양식의 선택과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일기’관
4. 여성의 존재기반과 젠더의식, 그리고 글쓰기
5. 자기서사로서의 ‘일기문학’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헤이안(平安) 시대의 산문문학 중 그 시대 여성들의 삶과 사랑 등 생활사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이른바 ‘여류 일기문학’에 주목해, 젠더와의 관련성에 관해 고찰해 본 논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문학 속에서 ‘일기’와 ‘일기문학’의 차이는 무엇이며, 여성이 왜 자기 삶을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데 ‘일기(문학)’라는 양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최초의 여류 일기문학인 『가게로 일기(蜻蛉日記)』에 형상화된 화자인 ‘미치쓰나의 어머니(道綱母)’의 자의식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존재기반과 젠더의식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사실의 기록이라는 일기의 본래적인 성격에 충실한 남성의 한문 ‘일기’와 달리, 여성(또는 여성으로 가장한 남성)이 어느 시점에서 그 이전의 자기 삶, 즉 체험한 자기 시간을 회상해 가나 문자로 쓴 일종의 회고록인 여성의 ‘일기’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일본 고전여성문학 전공

가 ‘문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인생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일기’관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이 가나로 쓴 ‘일기’는 ‘옛 이야기(古物語)’와는 달리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이며, 남성의 공적 한문일기와는 달리 자기 신상과 관련된 내용만 집필하는 양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재구조화해 ‘일기문학’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글쓰기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독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이라는 일기의 본래 목적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점이 여성이 ‘일기’라는 양식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가게로 일기』에 형상화된 화자인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자의식의 양상은 ‘나는 뭐란 말인가’라는 표현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등으로 표상화된 자의식에 바탕해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남편인 후지와라 가네이에(藤原兼家)와의 관계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젠더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상의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현실적인 자기 이야기를 ‘일기(문학)’라는 양식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다. 이때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자기 심정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었던 데는 자국어문자인 가나문자라는 표현수단의 성립과 획득이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핵심어 : 일본 여성문학, 일기문학, 가게로 일기, 미치쓰나의 어머니, 가나 문자, 젠더

1. ‘일기문학’의 두 요소, 여성과 가나 문자

935년께 남성 관료이자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대표 편찬자인 기(노) 쓰라유키(紀貫之)¹⁾에 의해 쓰인 『도사 일기(土佐日記)』의 모두

1) 『도사 일기』가 기(노) 쓰라유키의 작품이라는 것은, 『고센와카슈(後撰和歌集)』 권 19 기료(羈旅) 편에 『도사 일기』에 나온 와카 두 수가 쓰라유키 작으로 소개돼 있다

(冒頭)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남성도 쓰는 일기라는 것을 여성인 나도 써 보려고 한다. 모년 12월 20 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어느 날, 술시에 문을 나서다. 그때 일어난 일을 약간 적도록 한다.²⁾

위의 인용은 주로 남성에 의해 집필돼 왔던 기존의 ‘일기’³⁾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양식의 여성에 의한 ‘일기’, 즉 ‘일기문학’ 양식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일기문학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온 부분이다. 『도사 일기』는 기(노) 쓰라유키가 오늘날의 고치 현(高知縣)인 도사 지방에서 5년간(930~935년) 지방관으로 머문 뒤 임기를 마치고 교토(京都)로 돌아갈 때의 55일간에 걸친 여정을 가나(假名) 문자로 시간순으로 기록한 여행일기이다. 『도사 일기』가 주로 남성에 의해 집필된 이전의 한문 여행일기와 다른 점은, ‘하루하루(日次)’의 여행을 기록한다는 종래의 일기 형식을 따르고는 있지만, 사실을 기록한다는 종래의 일기 집필 목적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딸을 임지인 도사에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의 심정과 바다여행의 불안 등 화자의 내면을 가나 문자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노) 쓰라유키는 화자의 심정 및 내면을 드러내는 데는 남성이 쓴 한문일기가 아닌 여성이 가나

는 점과 더불어, 『에교보시슈(惠慶法師集)』 192번 노래 설명에 ‘つらゆきがとさの日記を、ゑにかけるを、いつとせをすぐしける、家のあれたる心を’라고 실려 있는 데 근거한다.

2) 菊地靖彦 校注·譯, 『土佐日記蜻蛉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1, 小學館, 1995, 15쪽.

3) 나카노 고이치(中野幸一) 씨의 『女流日記文學の完成—記録から文學へ—』(『國文學解釋と鑑賞』 792号, 1997. 5, 19쪽)에 의하면, ‘남성도 쓰는 일기’란 일반적으로 지방관이 임지에 부임했다가 교토로 돌아갈 때의 왕복여행을 기록한 한문 여행일기를 가리킨다고 한다.

로 쓴 새로운 일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노) 쓰라유키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점이다. 즉 남성인 화자가 여성으로 자기를 가장해 기존의 일기와는 다른 양식의 글을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왜 ‘여필가탁(女筆假託)’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여성필자로 굳이 가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성이 가나 문자로 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와 ‘남성이 한자로 일기를 쓴다’는 행위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문학사에서 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상대문학(구전문학~나라 시대 문학), 중고문학(헤이안 시대 문학), 중세문학(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 문학), 근세문학(에도 시대 문학), 근대문학(메이지 시대 이후 문학)으로 대별되는 게 일반적이다. 연구의 중심적인 학회 활동 또한 그 중심은 상대문학회, 중고문학회, 중세문학회, 근세문학회, 근대문학회와 같이 문학사의 시대구분에 바탕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일본문학 연구가 장르나 양식별⁴⁾로 이루어지기보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대를 기본틀로 상정해 놓고 이루어지는 데서, 정치·경제적인 시대상황과 긴밀히 연관돼 나타나고 있는 일본문학의 흐름 및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 794~1192년)의 중고문학은 일본문학사에서 한마디로 ‘여성문학의 전성기’로 일컬어질 정도로 그 시대 문학, 그 중에서도 산문문학의 주 담당층은 여성이었다. 그 시대 산문문학은 우리의 고소설에 해당하는 모노가타리(物語), 일기문학, 수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일본의 노래’라는 의미의 5·7·5·7·7조의 음수율을 지닌 와카(和歌)가 운문문학을 대표하고 있었다. 와카는 사찬집(私撰

4)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란, 예술작품, 건축물 등의 형식적 특징을 종합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특정한 시대·유파·작가 등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성을 의미한다.

集), 사가집(私家集) 이외에도 905년 『고킨와카슈』를 시작으로 헤이안 시대에만 해도 천황의 명에 의해 편찬된 칙찬 와카슈(勅撰和歌集)가 7회나 나올 정도로 시가집으로 정리돼 향유되었지만, 산문문학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심정이나 작품 전개 of 복선으로 기능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따라서 헤이안 시대의 산문문학은 와카라는 운문까지 아우른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헤이안 시대의 산문문학 중 그 시대 여성들의 실제적인 삶과 사랑 등 생활사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근대 이후 일본 고유의 문학양식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이른바 ‘여류 일기문학’에 주목해, 일본문학 속에서 ‘일기’와 ‘일기문학’의 차이는 무엇이며, 여성이 왜 자기 삶을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데 ‘일기(문학)’라는 양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최초의 여류 일기문학인 『가게로 일기(蜻蛉日記)』에 나타난 화자인 ‘미치쓰나의 어머니(道綱母)’의 ‘일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화자의 젠더의식⁵⁾의 기반이 되고 있는, 그녀의 존재기반에서 배태된 자의식의 양상에도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글쓰기 의미 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도록 한다.⁶⁾

2. 남성의 한문 ‘일기’와 여성의 가나 ‘일기문학’

고대 일본의 한문일기는 크게 공적인 일기와 사적인 일기로 나눌 수

5) 본고에서 쓰고 있는 ‘젠더’란, 생물학적 성차에 기반하는 게 아닌 사회구성적인 개념으로서, ‘문화 속의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사회 조직화된 성차’, 즉 남성성·여성성을 의미한다(大越愛子, 『フェミニズム入門』, ちくま新書, 1996, 165~166쪽).

6) 여성주의 문학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와 같은 여성어문활동 연구가 지니는 의미 등에 관해서는, 이경하 씨의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등 일련의 논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있다. 공적인 일기로는 ‘나이키 일기(內記日記)’, ‘게키 일기(外記日記)’, ‘덴쇼 일기(殿上日記)’를 들 수 있고, 사적인 일기로는 ‘신키(宸記)’, ‘구교 일기(公卿日記)’를 들 수 있다.

‘나이키 일기’란 천황 곁에서 궁중의 정무를 통괄하던 나카쓰카사 성(中務省)의 관리인 나이키가 직업적으로 천황의 동정을 기록한 것으로 공적인 일기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선보였다. ‘게키 일기’는 중앙 최고 관청인 다이조칸(太政官)의 서기인 게키가 직무로 기록하던 일기로 9세기 중엽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덴쇼 일기’는 천황의 거처인 세료덴(清涼殿)의 당상관 대기소인 덴쇼노마(殿上の間) 당번인 구로도(藏人)의 직무일기이다. 이들 공적인 일기들은 모두 한문으로 하루하루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율령제 쇠퇴에 따라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자취를 감추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지만, 다른 기록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표현과 형식이 획일적이라 기록자의 감정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다텐노고키(宇多天皇御記)』와 같은 천황의 일기인 ‘신키(宸記)’,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미도칸과쿠키(御堂關白記)』와 후지와라 사네스케(藤原實資)의 『쇼유키(小右記)』 등으로 유명한 상류 귀족들의 일기인 ‘구교 일기(公卿日記)’, 『도사 일기』보다 100여 년 전에 엔닌(円仁)이 한문으로 쓴 『닛토구보쥰라이코키(入唐求法巡礼行記)』 등을 비롯한 여행일기와 같은 사적인 일기에는 집필자의 개성과 감정이 일정 정도는 표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일기에 나타난 화자의 내면 표현은 한정적·단편적인 수준이었고 조정의 의식이나 정무, 궁중에서 일어난 일 등 공적인 여러 행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남성에 의해 쓰인 『도사 일기』를 전후해 나온 한문일기는 공적 일기든 사적 일기든 ‘기록’이라는 목적 아래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사 일기』가 나오기 전에도 여성이 가나로 쓴 일기가 없었

던 것은 아니었다. 공적인 일기이기는 하지만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주석서인 『가카이쇼(河海抄)』에 인용돼 그 존재가 알려진 다이고 천황(醍醐天皇; 재위 897~930년)의 황후인 후지와라 온시(藤原穩子) 또는 그 측근이 가나로 쓴 『오키사키 일기(大后日記)』나 와카 솜씨를 서로 겨루는 우타아와세(歌合せ) 행사를 기록한 ‘우타아와세 일기’ 가운데 여성에 의해 가나로 집필된 일기 등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여성에 의해 집필된 공적인 가나 일기에는 사적인 남성들의 한문일기와 마찬가지로 집필자의 감상과 심정이 어느 정도 표현돼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의 ‘기록’이라는 일기가 지닌 본래 성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집필자의 심정 표현이 일정 정도 형상화된 남성의 사적인 한문일기와 여성의 공적인 가나 일기는 일기문학의 초기 모습으로 파악되기도 해, 다마이 고스케(玉井幸助) 씨는 ‘일기문학이란 일기이면서 나아가 문학적’이라는 견해⁷⁾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마이 씨의 이와 같은 지적은 ‘일기문학 성장설’이라고 범주화해 볼 수 있을 듯한데, 일기와 일기문학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며,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일기문학이란 일기와는 전혀 다른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로는 기무라 마사노리(木村正中) 씨, 아키야마 겐(秋山虔) 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입장은 ‘일기문학 준별설(峻別說)’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듯하다. 기무라 씨는 일기와 일기문학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독자적인 인생인식’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엔닌의 『닛토구보준라이코키』에도 어느 정도 감정의 표출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인 데 반해, 『도사

7) 玉井幸助, 『日記文學の研究』, 塙書房, 1965, 5쪽.

일기』의 심정 표출은 작자 기(노) 쓰라유키의 실제 삶의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독자적인 인생인식이 구상화되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기무라 씨는 한문 표현의 경우는 문장의 법칙이나 불교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일이 있어도 단순한 생활감정의 반영으로 끝나 버리므로, 내재적인 인생 논리로써 자립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틀을 지니지 않은 가나 표현이 자연스럽게 요청된다⁸⁾고 지적하여, 한자와 가나의 표기 기능의 차이 또한 언급하고 있다.

즉, 일기가 아닌 일기문학이기 위해서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일기가 지닌 본래적인 성격에서 탈피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사 일기』를 제외하고 현재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텍스트 대부분이 여성이 가나로 자기 인생을 회고해 집필한 작품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을 때, ‘여성이 가나로 쓴다’는 게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의 구현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간무(桓武) 천황이 794년에 헤이안 경(平安京; 오늘날의 교토)에 도읍을 정한 뒤 가마쿠라(鎌倉)에 막부가 개설되는 1192년까지 400여 년에 걸친 헤이안 시대에 여성 작자에 의한 산문문학이 발달한 이유에 관해서는 종래 많은 지적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로는, 후지와라(藤原) 씨를 중심으로 하는 섭관(攝政·關白) 정치체제 아래에서 문화 살롱의 기능을 지닌 후궁 중심의 귀족문화가 발달했다는 정치적인 측면과 일부다처제라는 혼인제도 속에서 여성들 삶의 불안정

8) 木村正中, 『日記文學とはなにか—綴られる人生—』, 『國文學解釋と鑑賞』 587号, 1981. 1, 32~34쪽. 일기문학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아키야마 겐 씨 또한 『女流日記文學の世界』(『女流日記文學とは何か』, 女流日記文學講座第一卷, 勉誠社, 1991) 등의 논문에서 기무라 씨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다.

성이 극대화되었다는 측면 등이 연동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가나 문자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족문화의 주된 담당층이면서 정치권력 유지에 복무했던 중류귀족 출신의 궁정 나인인 뇨보(宥仕え女房)나 결혼해 집안에 안주해 있던 여성들(家の女)이 자신들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생성된 삶에 대한 불안과 고뇌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자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자기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민족어문자인 가나가 그 당시 이미 성립돼 쓰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기(노) 쓰라유키가 관료들의 공적인 기록 수단인 한문이 아닌 가나 문자를 표현수단으로 선택해 여성으로 자기를 가장해 일기를 쓰고자 했을 때, 그 행위는 관료라는 공적인 신분을 벗어난짐으로써 기록자라는 공인으로서의 의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현을 의미한다. 그때의 일기는 하루하루의 기록이라는 ‘일기’의 외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양식의 ‘일기문학’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문이라는 공동어문자의 틀 안에서 사실의 기록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남성 관료로서의 모습을 벗고 여성으로 가장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남성의 사회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내면의 심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민족어문자인 가나 문자를 표현수단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차이와 한자와 가나 문자의 표기 기능과 사회적 지위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사 일기』 이후 잇따라 등장하는 『가게로 일기』 『이즈미시키투 일기(和泉式部日記)』 『무라사키시키투 일기(紫式部日記)』 『사라시나 일기(更級日記)』 등의 여류 일기문학의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일기문학’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들어와 만들어진 조어이고 그 이전엔 남성의 한문일기든 여성의 가나 일기든 모두 ‘~일기’라는 용어

로 일컬어졌다. ‘여성(또는 여성으로 가장한 남성)이 어느 시점에서 그 이전의 자기 삶, 즉 체험한 자기 시간을 회상해 가나로 쓴 일종의 회고록’이 ‘일기문학’이라는 용어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22년 영문학자인 도이 고치(土居光知) 씨의 『문학서설(文學序說)』(岩波書店, 1922)에서였으며, 여기에서 헤이안 시대 여성들의 자전·자조 문학은 ‘서정성, 인생에 대한 관조, 진지한 자기 고백, 자기 관조의 문학, 상상력에 의한 구성적 표현’이라는 문학성을 구현했다고 재조명되면서 하나의 문학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⁹⁾ 1920년대 전반 자조문학으로서 일기문학이 재조명되게 된 것은 1900년 들어 일본 문학사조의 중심을 이루었던 일본식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이후 일기문학은 스즈키 도미(鈴木登美) 씨가 지적하고 있듯이, 문학을 통해서 보다 순수한 자신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문학의 전통적 원형이 자국의 국문학 전통 속에도 있다고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경향 속에서 일본 고전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가게로 일기』를 비롯한 일기문학은 젠더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자전적 텍스트로 각광받으며, 고전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9) 아키야마 겐 씨는 『女流日記文學についての序説』(『王朝女流日記必携』, 學燈社, 1986)에서 ‘일기문학’이라는 용어가 1927년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潛一) 씨의 『日記文學と女性』(『日本文學聯講』, 中興館, 1927), 이케다 기칸(池田龜鑑) 씨의 『宮廷女流日記文學』(至天堂, 1927)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시기상 도이 고치 씨의 『文學序說』이 앞선다.

10) 스즈키 도미, 『장르·젠더·문학사 서술』,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또한 후카자와 도루(深澤徹) 씨는 『「女流日記文學」から「女房日記」へ(上)－「啓蒙的理性」の衰え、もしくは女房集團の文學－』(『論集日記文學の地平』, 新典社, 2000)에서 근대 이후의 여류 일기문학의 고전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여류 일기문학’이 아닌 ‘노보 일기’로의 재정립을 주장하며 주군 집안의 일을 기록했다는 일기 본연의 목적을 일기문학에서 찾고자 한다. 하지만, 『가게로 일기』와 『사라시나 일기』를 쓴 미치쓰나의 어머니나 스가와라 다카스에(菅原孝標)의 딸과 같이 노보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잠깐밖에 하지 않았던 가정 부인의 자기서사와 같은 작품을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기와 일기문학을 변별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는 ‘Selfreflection’의 번역어로 알려진 ‘자조(自照)’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조문학이라는 이름 아래 일기의 문학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1923년 가이토 마쓰조(垣内松三) 씨의 「자조문학(自照の文學)」(『講座』創刊号)에서였고, 뒤이어 1926년 이케다 기칸(池田龜鑑) 씨의 「자조문학사(自照文學史)」(『國文教育』10)가 나왔다. 이케다 씨에 의하면, 자조문학이란 ‘자기 스스로의 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참회와 고백과 기도 문학의 한 계열’을 의미하며, 히사마쓰 센이치(久松潛一) 씨는 ‘자기를 반성하고 응시하는 문학’으로 자조문학을 규정하고 있다.¹¹⁾

즉,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자조’란 ‘자기를 내성적인 눈으로 응시해 거기에서 발견한 진실된 자기 모습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쓰임으로써, ‘표현을 창출해 내는 정신의 문제임과 동시에 표현행위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¹²⁾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조성의 개념 규정이 애매한데다 일기문학이 자조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여성이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자기 삶을 내면화·내성화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기라는 틀 속에서 ‘나’의 존재성을 탐구함으로써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을 확립해 나갔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일기문학과 자조성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1) 池田龜鑑, 『自照文學の歴史的考察』, 『日記・和歌文學』, 至文堂, 1968.

久松潛一, 『日記文學の本質』, 『古典の窓』, 角川書店, 1960.

12) 吉野瑞恵, 『『蜻蛉日記』の自照性と物語性』, 『蜻蛉日記』, 女流日記文學講座第二卷, 勉誠社, 1990, 207쪽. 요시노 씨는 이 논문에서 표현행위까지 확대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자조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 ‘일기’라는 양식의 선택과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일기’관

그러면 여성(또는 여성으로 가장한 남성)이 어느 시점에서 그 이전의 자기 삶, 즉 체험한 자기 시간을 회상해 가나로 회고록을 쓰는 데 ‘일기’라는 양식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게로 일기』를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게로 일기』는 10세기 후반(974년경 성립) 일본 헤이안 시대 때 가나 문자로 쓰인 최초의 여류 일기문학이다. 일본문학사 속에서 『가게로 일기』는 뒤이어 나오는 『이즈미시키부 일기』 『무라사키시키부 일기』 『사라시나 일기』 등의 여류 일기문학과 『겐지 모노가타리』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자는 중류귀족인 후지와라 도모야스(藤原倫寧)의 딸로 이름은 미상이며, 당시 권문세가의 자제로 뒷날 섭정태정대신(攝政太政大臣)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는 후지와라 가네이에(藤原兼家: 929~990년)와 결혼해 미치쓰나(道綱)라는 외아들을 두어, 문학사에서는 보통 ‘미치쓰나의 어머니(936?~995년?)’로 일컬어지고 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라는 혼인제도 속에서 남편인 후지와라 가네이에와 결혼해 보낸 20여 년간(954~974년)에 걸친 결혼생활을 축으로 그 속에서 생성된 고뇌의 양상과 전개과정을 진솔하게 토로 함으로써, 마음과는 달리 자꾸 꼬여만 가는 부부 사이의 내밀한 사연과 심적 갈등을 구구절절이 기록하고 있다.

『가게로 일기』는 상·중·하 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본(伝本)은 모두 17세기 이후인 에도 시대의 서사본(書寫本)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작품구성이 작자에 의해 의도된 것인지, 후세에 필사한 사람들에 의해 변용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결혼한 해인 954년부터 968년까지의 15년간을 기록한 상권은 남편과의 행복했던 결혼생활을 회상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969~971년까지의 3년간을 그린 중권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몇 차례에 걸쳐 산사에 칩거하기까지 하는 작자의 고뇌와 갈등이 주로 그려져 있으며, 972~974년까지의 3년간을 그린 하권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체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모습과 양녀와 이들의 결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 그리고 끝내 남편과의 결혼관계가 해소되는 내용이 그려져 있어, 전권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권마다의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집필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구성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게로’라는 서명은 상권 발문(跋文)에 나오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아지랑이처럼 허무한 여자의 처지를 기록한 일기라고 할 수 있겠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자신의 삶을 아지랑이에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오카가미(大鏡)』(11세기 말~12세기 초 성립된 역사 모노가타리)에 서명이 ‘가게로(かげろふ)’라는 히라가나로 쓰여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서명에는 한자가 병기돼 있지 않았고 ‘칭령(蜻蛉)’이라는 한자는 후대에 붙은 것이다. 현대 일본어에서 ‘칭령(蜻蛉)’은 ‘돈보(とんぼ)’로 읽혀 잠자리라는 의미이다. 일본어 고어에서 ‘가게로(かげろふ)’란 단어는 ‘아지랑이, 하루살이, 잠자리’ 등의 다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서명의 해석은 연구자의 작품 이해에 따라 지금까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우쓰호 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라는 고소설 속에서 ‘가게로’가 아지랑이의 의미로 쓰여 허무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과, 『고센와카슈(後撰和歌集)』에 실린 와카에서도 아지랑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게로’는 아지랑이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즉 『가게로 일기』에서 ‘가게로’는 자기 자신의 20여 년에 걸친 결혼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실체가 잡히지 않을 만큼 허무함을 느낀다는 작자의 의식을 나타내 주는 상징표현으로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게로 일기』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일기(日記)’라는 용례¹³⁾를 통해 화자인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20여 년에 걸친 현실적인 결혼생활을 기록하는 데 있어 ‘일기(문학)’라는 양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일기를 어떠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일기’의 용례는 상권 서문에 1회, 상권 발문에 1회, 그리고 중권에 1회 나타나 있다.

먼저, 『가게로 일기』 상권의 서문과 발문(跋文)에 나타나 있는 ‘일기’의 용례를 보도록 한다.

【상권 서문】 이렇게 내 반평생의 세월은 흘러가고, 세상에 참으로 의지할 데 없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생김새라고 해봤자 도저히 남만큼도 못되고 사려분별도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별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단지 자고 일어나며 밤과 낮을 보내다가, 세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 옛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많고 많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조차 있더라. 하여 보통사람과는 다른 이내 신세라도 일기로 써 풀어내면, 좀체 접할 수 없는 색다른 것으로 여겨질런가, 천하에 더할 나위 없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결혼생활은 어떠한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의 한 예로라도 삼았으면 하고 생각도 해 보지만, 지나간 세월 동안의 일들이 어렵풋하게밖에 기억나지 않아,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적당히 쓰다가 놔두는 일들도 많아져 버렸다. (상권·89쪽)¹⁴⁾

13) 宮島達夫編, 『古典對照語い表』(笠間書院, 1971)에 의하면, 일본 고전문학 속에 ‘일기’라는 표현은 『도사 일기』에 1회, 『가게로 일기』에 2회(실제로는 3회임),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4회, 『오카가미(大鏡)』에 3회, 『쓰레즈레구사(徒然草)』에 2회 나타나 있다. 그리고 玉井幸助, 『日記文學概說』(図書刊行會, 1982. 초판은 1945)에 의하면, 일본의 현존하는 문헌에서 ‘일기’라는 표현은, 『類聚符宣抄』(821)에 나오는 용례가 처음이라고 한다.

14) 『가게로 일기』의 인용은 木村正中校注·譯, 『土佐日記 蜻蛉日記』(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13, 小學館, 1995)에 의하며, 괄호 안에 권수와 쪽수를 표기한다.

【상권 발문】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는데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내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는지라, 새해가 밝아도 기쁘지 않고 변함 없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으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아지랑이**처럼 허무한 여자의 처지를 기록한 **일기**라고 할 수 있겠다. (상권·167쪽)

위의 인용 중 상권 서문은 상권 발문과 호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기를 집필하게 된 계기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게로 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서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인식이 잘 나타나 있어,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자의식¹⁵⁾을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문에는 이러한 자기 규정 속에서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가게로 일기』라는 ‘일기(문학)’를 집필하게 된 계기와 목적이 ‘옛 이야기(古物語)’와의 대비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언급한 ‘옛 이야기’는 구체적인 특정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허구에 바탕한 선행 모노가타리 전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가게로 일기』 이전의 모노가타리 중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야마토 모노가타리(大和物語)』 『헤이추 모노가타리(平中物語)』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는 고전승(古伝

15) 본고에서 쓰고 있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 타인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으로서, 심리학 용어인 ‘자아의식’, 철학 용어인 ‘자기의식’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고지엔(廣辭苑)』에 의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의식’이란, 자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의식을 말하며, 능동성의 의식, 단일성의 의식, 시간이 경과해도 동일하다는 의식, 외계와 타인에 대해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의 네 측면으로 성립된다고 한다. 또한 ‘자기의식’이란, 자기 자신에 관한 의식으로서, 제 체험의 통일적·항상적·자기 동일적 주체로서의 자아의 의식을 말한다고 한다.

承)을 바탕으로 중국의 항아전설, 서왕모 설화 등이 결합된 전기적(伝奇的)인 모노가타리로 달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가구야 아가씨(かぐや姫)를 둘러싼 귀족과 천황의 구혼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 밖에 세 작품은 이른바 ‘우타 모노가타리(歌物語)’로 일컬어지고 있는 작품들로서 와카를 중심축에 두고 귀족 남성의 구혼담을 우아하게 또는 골계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들은 비교적 완성도가 높지만,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선행 모노가타리의 허구성과 전기적인 요소를 문제삼아 ‘세상에 많고 많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즉 현실성이 결여된 이야기라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로 뒤이어 나오는 ‘보통사람과는 다른 이내 신세’를 ‘일기’로 써 보겠다는 구절과 종합해 보았을 때,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남녀관계를 이상적으로 아름답게만 그리고 있는 현실성이 결여된 허구성에 바탕한 ‘모노가타리’와는 달리, ‘일기(문학)’라는 양식을 통해 실제적인 삶에 바탕한 남녀관계의 적나라한 이야기, ‘사랑하던 두 사람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살았다’는 종래에 떠돌던 이야기들의 결말 이후의 이야기, 즉 현실적인 결혼생활을 그려 보이겠다고 『가게로 일기』 집필에 이르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자기 신세나 처지를 나타내는 ‘미노우에(身の上)’·‘미(身)’로 수렴되고 있는, 서문의 ‘보통사람과는 다른 이내 신세(人にもあらぬ身の上)’라는 구절과 발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내 신세(思ふやうにもあらぬ身)’라는 구절은 서로 호응하는 표현으로서, 이를 통해 화자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결혼생활 이야기가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불행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이러한 집필을 통해 ‘천하에 더할 나위 없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결혼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 기록이 하나의 ‘예’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적까지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키모토 쓰토무(柿本獎) 씨는 ‘자기 인생체험을 기록해

전례(前例)로서 후대에 남겨 얼마간은 도움이 되어 줄 것을 기대¹⁶⁾하는 효용의식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요시노 미즈에(吉野瑞惠) 씨 또한 기록성이라고 하는 일기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에 주목해,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일기라는 양식의 집필 행위를 통해 공적인 세계로의 참여를 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기’의 특징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처럼 소중히 보관돼 과거의 역사를 참조하거나 전거(典據)로서 사용된다는 점이 아닐까. (...) 즉, 일기는 비록 사적인 내용을 기술한다고 해도 사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이 시대의 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참조될 만한 사건을 써 남기는 것이었다. (...) 고통에 찬 인생을 거친 뒤 쓰는 행위를 통해 고뇌를 극복하고 싶다는 동기는 사적이라고 해도, 가네이에라는 등장인물은 궁정사회에서 주목받는 공인이므로, 자기 ‘신세(身の上)’라고 일컬어지는 소재 자체가 사적인 세계에 갇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스스로의 생활기록을 ‘예(例)’로서 독자 앞에 내놓은 것은 단지 상류귀족 부인의 생활기록 한 예를 제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같은 체험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시야에 넣으면서 참조될 만한 ‘예’를 써서 제시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기라는 틀은 참으로 안성맞춤이었다. 한 여성의 인생은 일기에 그려져 ‘예’가 됨으로써 역사에 편입돼 공적인 것이 되어 가는 것이다. (...) 일기라는 명칭은, 여성의 집필을 용이하게 해 주는 틀을 제공해, 역사에 참여할 회로(回路)를 제공한 것이다.¹⁷⁾

그리고 『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일기’의 용례를 통해 미치

16) 柿本獎, 『『蜻蛉日記』を書かせたもの』, 『國文學解釋と鑑賞』第43卷 9号, 至天堂, 1978. 9, 98쪽.

17) 吉野瑞惠, 『日記と日記文學の間—『蜻蛉日記』の誕生をめぐって—』, 『國語と國文學』2005年 5月号, 20~24쪽.

쓰나의 어머니가 이해하고 있는 일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25, 6일쯤에 서궁(西宮)에 계시는 좌대신이 유배가시는 모습을 뵈겠다고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서궁으로 사람들이 허둥지둥 부산을 떨며 달려간다. 이 얼마나 큰일인가라고 생각하며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던 차에,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댁을 빠져 나가시고 말았다. 아타고 산(愛宕山)에 계신다는 등, 기요미즈테라(清水寺)에 계신다는 등 난리법석을 피운 뒤 결국 찾아내 유배를 보내셨다고 들으니, 이렇게까지 하다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척이나 슬퍼, 나처럼 둔한 사람조차 이러한데, 인정이 많은 사람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많은 자체 분들도 궁벽한 지방을 떠도는 신세가 되어 행방도 모르고 제각각 헤어지 시거나, 또는 출가하시거나 하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다. 대신도 출가해 스님이 되셨지만 억지로 다자이 부(大宰府)의 임시 장관으로 임명해 규슈(九州)로 추방해 내려 보내셨다. 그 즈음엔 온통 이 일에 관한 소문만으로 날을 보냈다. 내 신상에 관한 일만 적는 일기에는 넣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몹시 슬퍼한 건 다른 사람 아닌 나이므로 써 두는 것이다. (중권·172~173쪽)

위의 인용에는, 969년(安和 2年) 3월에 일어난 ‘안나의 변(安和の變)’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이고(醍醐) 천황의 아들인 좌대신 미나모토 다카아키라(源高明)가 황태자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규슈로 추방되는 모습과 그 일족들의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다카아키라의 정처(正妻)는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남편인 가네이에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해서 다카아키라 일족의 불행은 완전한 남이 아닌 인척의 불행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녀의 동정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킨 사건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 신상에 관한 일만 적는 일기에는 넣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身の上をのみする日記には入るまじきこと)’에서 옛

볼 수 있는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일기’관이다. 즉,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정치권력을 둘러싼 세력 다툼 및 역모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 즉 남성들이 관여하는 정치세계의 일은 일기로 적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기관은 상권 서문의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이내 신세’를 ‘일기’로 써 보겠다는 구절과 호응하는 일기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하고 본인 스스로도 몹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일기로 적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데서,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일기’가 기록을 목적으로 남성들이 쓰던 한문일기와는 전혀 다른, 자기 신상과 관련된 내용만 집필하는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리고 이 인용은 ‘안나의 변’이 일본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던 만큼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존재성 또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정치권 밖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남편과 집안끼리의 관계로 어느 정도는 사건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삶을 재구조화해 ‘일기문학’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글쓰기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기록’이라는 일기의 본래 목적 또한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는 일기문학의 내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여성의 존재기반과 젠더의식, 그리고 글쓰기

그런데,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가게로 일기』라는 자기 반생을 회고해

18) 노구치 모토히로(野口元大) 씨 또한 『蜻蛉日記の日記認識』(『王朝日記の新研究』, 笠間書院, 1995, 97쪽)에서, 이 인용을 근거로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일기를 남성 일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을 씌으로써 자기 삶을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객관화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상류 귀족과 결혼한 한 여성의 예로서 드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헤이안 시대 때 여성들의 공적인 사회활동은 궁중 나인으로서 천황과 그 후궁들을 보좌하는 일 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중류 이상의 여성은 집안에서 언제 자기 집을 찾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의 형태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궁중 나인인 노보(女房)와 달리 오직 남편과의 관계가 유일한 사회와의 연결 통로였을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자기서사¹⁹⁾는 따라서 여성문학의 전성기였던 헤이안 시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주목할 만한 행위였다.

그 시대 모노가타리를 대표하는 『겐지 모노가타리』를 집필한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와 대표적인 수필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를 집필한 세이쇼나곤(清少納言)은, 이치조 천황(一條天皇: 재위 980~1011년)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였던 쇼시(彰子)와 데이시(定子)를 모시는 궁중 나인으로서 그들의 글쓰기는 주인의 교양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후지와라(藤原) 가문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양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들이 궁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문재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가

19)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서사는 ‘이야기(story)가 있고 화자(teller)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를 서사(narrative)라고 한다면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는 박혜숙 씨의 개념규정에 의한다(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이러한 개념규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류 일기문학, 특히 『가게로 일기』는 전형적인 자기서사로 파악할 수 있다.

게로 일기』 이외의 다른 일기문학을 집필한 여성들 또한 모두 궁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따라서 사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 부인(家の女)’²⁰⁾인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집필행위는 그 당시에 도 보지 못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자기 삶을 글로 풀어 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요인은 그녀의 존재기반에서 배태된 남다른 자의식과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 젠더의식을 들 수 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젠더의식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그녀의 자의식 표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 사흘째쯤 되는 날 아침에,

이른 새벽녘 헤어져 가는 길에 보이는 하늘

애달픈 이내 마음 이슬로 되고 지고

답가,

이슬과 같이 덧없이 사라져 갈 당신 마음을

부질없게도 믿는 나는 뭐란 말인가

(상권·94쪽)

헤이안 시대 때의 결혼은 남성이 여성의 집을 사흘 밤 연속으로 찾아가 함께 밤을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밤 여성의 집에서 ‘도코로아라와시(露顯)’라는 피로연을 열어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다. 미치쓰나의 어머

20) 헤이안 시대 여성문학을 담당한 종류 귀족 여성들을 그들의 존재기반에 따라 궁정 나인인 뇨보(宮仕へ女房)나 결혼해 집안에 안주해 있던 여성들(家の女)로 나누어 그들의 문예 의식을 고찰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마스다 가쓰미(益田勝實) 씨의 『源氏物語の荷ひ手』(『日本文學史研究』 11, 1951) 및 이를 이어받아 더욱 심화시킨, 기쿠타 시게오(菊田茂男) 씨의 『家の女-蜻蛉日記』(『國文學』 1975年 12月号, 學燈社)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무라이 야스히코(村井康彦) 씨는 『待つ女-拒む女との間』(『國文學』 1978年 3月号, 學燈社)에서, 헤이안 시대 결혼제도인 일부다처제 속에서 ‘가정부인(家の女)’의 삶의 방식을 ‘기다리는 여자(待つ女)’로 규정했다.

나는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남편인 후지와라 가네이에에게 ‘나는 뭐란 말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초서혼(招婿婚) 형식의 결혼제도 속에서는 여성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낸 다음 남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벽녘에 일찍 집을 나와야만 했다.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보내는 와키는 여성의 집을 일찍 나서야 되는 아쉬움과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내용이었고, 가네이에의 와키는 이러한 연애의 방식을 충실히 구현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그러한 당신을 믿고 결혼한 나는 뭐란 말인가’라고 남편의 상투적인 표현에 정색을 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배태된 자신의 위치, 자신에 대한 남편의 애정 정도를 묻고 있는 이 물음을 통해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자의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부인’이라는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존재기반을 고려했을 때 남편인 가네이에와의 관계는 타자와 관계 맺기의 전부이다시피했고, 나아가 여성의 이러한 반응은 현존하는 다른 일기문학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이다.²¹⁾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자의식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인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런저런 생각에 심란해 하고 있던 터에, 아나나 다를까 10월 말께 사흘 밤 잇따라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 사람은 짐짓 모르는 체하면서, “잠시 당신 마음을 떠 보느라.”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내 집에 있다가 저물녘에 “궁 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라며 나가기에 이상해서 사람을 시켜 뒤따라가 보게 했더니, 돌아와 “길거리에서 들어간 골목 어디 쫘엔가 우차(牛車)를 멈추셨습니다.”라고 한다. 그럼 그렇지, 너무나도 참

21) 이미숙, ‘나는 뭐란 말인가(われはなになり)’—『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화자의 자의식과 젠더—, 『일어일문학연구』 67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248~249쪽.

을 수 없는 기분이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삼 일 뒤 새벽녘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그 사람이 왔다고 생각됐지만, 분한 마음에 열어 주지 않았더니, 골목길 여자네 집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 버렸다. 이른 아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한숨 내쉬며 나 홀로 지새우는 초겨울밤이

얼마나 기나긴지 당신은 아시나요

라는 와카를 여느 때와는 달리 공을 들여 써서 퇴색한 국화꽃에 꽃아 보냈다. (상권·100~101쪽)

결혼한 이듬해 외아들 미치쓰나를 출산한 직후 남편이 새로운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남편에 대한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대응은 그녀의 남다른 자의식의 정도를 숨김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위의 인용에서 주목할 점은 가네이에게 다른 여성과 결혼한 뒤 보여 주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태도이다. 가네이에의 ‘짐짓 모르는 체하’는 태도에 대해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새벽녘에 남편이 찾아온 사실을 알았으면 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돌려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남편에게 항의성을 띤 와카를 보내고 있다. 이때 와카를 꽃아 보낸 시들어 버린 국화꽃은 상대방 마음이 변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상징으로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이를 통해 남편의 변심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가게로 일기』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의미의 ‘나오아라지(なほあらじ)’ 및 그 유사표현은 상권에 5회, 중권에 3회, 하권에 2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헤이안 시대 다른 여류 일기문학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겐지 모노가타리』에서만 남성의 심정을 표현하는 데 4회 쓰이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린 일부다처제라는 결혼제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해 남편의 여성편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은 것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더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었던 시대였던 만큼,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이 같은 이례적인 대응은 그녀의 강한 자의식에서 표출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분출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게 된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헤이안 시대 귀족정치 체제하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후지와라(藤原) 가문 출신이며, 고대 일본의 주요한 성씨들의 계보를 정리한 『손피분마쿠(尊卑分脉)』라는 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셋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로 이름이 높았다. 그녀는 이 시대 여성의 기본적인 소양이었던 뛰어난 바느질 솜씨 또한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 966~1027년, 가네이에의 아들로 미치쓰나의 의붓형)의 삶을 그린 『오카가미』라는 역사 모노가타리 속의 “와카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서, 가네이에 공이 들르셨을 때의 일과 와카 등을 써 모은 것을 『가게로 일기』라 이름붙여 세상에 내놓으셨다”라는 구절과, 와카가 최고조로 발달했던 헤이안 시대 때의 유명한 가인을 일컫는 36가선(三十六歌仙) 중의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학적 재능 또한 겸비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강한 자의식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남편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20여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의 미모와 문재(文才) 등이 한몫을 담당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이러한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가네이에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는 열등한 위치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과 같은 후지와라 씨 일문이기는 했지만, 아버지 후지와라 도모야스는 중류귀족에 불과했고, 그녀가 결혼할 당시 도모야스는 젊은 귀공자인

가네이에의 동료로 호에 부(兵衛府)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결혼 당시부터 신분상 남편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네이에와의 결혼을 계기로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일부다처제 사회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종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기반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보통사람과는 다르며 자기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남편인 가네이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는, 결혼 직후 읊은 다음과 같은 와카 속에 담긴 가어(歌語)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또 얼마쯤 지나 발길이 뜸해졌을 무렵, 비가 오락가락 내리던 날, “저녁에 들르겠소”라고 전해온 데 대한 것이었는지,
떡갈나무 숲 풀처럼 저물 녀엔 기다리잇가
 못 믿을 당신 말에 눈물만 흘러흘러
 답가는 본인이 직접 온 탓에 호지부지돼 버렸다. (상권·95~96쪽)

‘떡갈나무 숲~’의 와카에서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가네이에를 ‘떡갈나무 숲(柏木の森)’에, 자기 자신을 그 숲 속에 우거진 ‘풀(下草)’에 비유함으로써, 남편과 자신과의 관계구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남편인 가네이에와의 관계 및 결혼생활 속에서 상하의 구도로 고착화된 남편과 자기 자신, 더 나아가 헤이안 시대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을 와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게 된 남녀의 사회적인 성차, 젠더의식은 그녀의 남다른 자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서문에서 밝힌, 현실성이 결여된 옛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보통사람과

는 다른 이내 신세'를 사실적으로 술회해 세상 사람들에게 신분이 다른 결혼생활의 실상을 전하겠다는 집필 목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천착이 없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일부다처제, 귀족 중심의 사회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여성, 중류귀족의 딸, 뛰어난 미모와 문학적 재능이라는 자기의 존재기반을 바탕으로 강한 자의식과 젠더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가나문자를 표현수단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과 그 속에서 겪게 된 내면의 심정을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형상화해 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자기서사로서의 '일기문학'

이상으로 10세기 후반 일본 헤이안 시대 때 집필된 최초의 여류 일기 문학인 『가게로 일기(蜻蛉日記)』를 중심으로, 일본문학 속에서 '일기'와 '일기문학'의 차이는 무엇이며, 여성이 왜 자기 삶을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는 데 '일기(문학)'라는 양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여성의 존재기반과 젠더의식의 관계 및 여성이 자기 삶을 글로 형상화한 글쓰기의 의미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천 년 전 일본 헤이안 경이라는 공간 속에서 꽃피웠던 자기서사로서의 '일기문학'에 주목함으로써, 한문학이라는 남성 중심의 주류문학 속에서 한글, 가나라는 민족어문자를 표현수단으로 획득해 자기 삶을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문학으로 재구조화해 낸 동아시아 고전여성문학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菊地靖彦·木村正中 校注 譯, 『土佐日記 蜻蛉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13, 小學館, 1995, 15·89·94~96·100~101·167·172~173쪽.

2. 단행본

스즈키 도미, 『장르·젠더·문학사 서술』,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132쪽.

秋山虔, 『女流日記文學についての序説』, 『王朝女流日記必携』, 學燈社, 1986, 6쪽.

秋山虔, 『女流日記文學の世界』, 『女流日記文學とは何か』, 女流日記文學講座 第一卷, 勉誠社, 1991, 35쪽.

池田龜鑑, 『自照文學の歴史的考察』, 『日記・和歌文學』, 至文堂, 1968.

大越愛子, 『フェミニズム入門』, ちくま新書, 1996, 165~166쪽.

玉井幸助, 『日記文學概説』, 図書刊行會, 1982.

玉井幸助, 『日記文學の研究』, 塙書房, 1965, 5쪽.

野口元大, 『蜻蛉日記の日記認識』, 『王朝日記の新研究』, 笠間書院, 1995, 97쪽.

深澤徹, 『「女流日記文學」から「女房日記」へ(上)－「啓蒙的理性」の衰え、もしくは女房集團の文學－』 『論集日記文學の地平』, 新典社, 2000.

久松潛一, 『日記文學の本質』, 『古典の窓』, 角川書店, 1960.

宮島達夫編, 『古典對照語い表』, 笠間書院, 1971, 219쪽.

吉野瑞恵, 『「蜻蛉日記」の自照性と物語性』, 『蜻蛉日記』, 女流日記文學講座 第二卷, 勉誠社, 1990, 207쪽.

3. 논문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제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쪽.

이경하,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 이미숙, 『나는 뭐란 말인가(われはなにになり)』— 『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화자의 자의식과 젠더—, 『일어일문학연구』 67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248~249쪽.
- 李美淑, 『『蜻蛉日記』 『柏木の森のした草』考—道綱母の自己認識—』, 『日本文芸論稿』 第26, 東北大學 文芸談話會, 1999.
- 李美淑, 『『蜻蛉日記』의 構造와 意識— 『つれなし』 『なほあらし』를 指標として—』, 『日本文芸論叢』 第13·14合併号, 東北大學 文學部 國文學研究室, 2000.
- 柿本獎, 『『蜻蛉日記』을 書かせた もの』, 『國文學解釋と鑑賞』 第43卷 9号, 至文堂, 1978. 9, 98쪽.
- 菊田茂男, 『家の女—蜻蛉日記』, 『國文學』 1975. 12, 學燈社.
- 木村正中, 『日記文學とはなにか—綴られる 人生—』, 『國文學解釋と鑑賞』 587号, 1981. 1, 32~34쪽.
- 中野幸一, 『女流日記文學の 完成—記錄から文學へ—』, 『國文學解釋と鑑賞』 792号, 1997. 5, 19쪽.
- 村井康彦, 『待つ女—拒む女との間』, 『國文學』 1978. 3, 學燈社.
- 吉野瑞恵, 『日記と日記文學の間—『蜻蛉日記』의 誕生をめぐって—』, 『國語と國文學』 2005. 5, 20~24쪽.

Abstract

Gender & a style of "diaries literature"

Lee, Mi-suk

Among prose literature in the Japanese Heian period, this manuscript intended to concentrate on 'lady diaries literature' which express living conditions of women in this period most outstandingly including their life & love and examined its relations to gender. Concretely, it was inspected what difference there's between 'diary' & 'diaries literature' in the Japanese literature, why women selected a style of 'diaries(literature)' to express their life through writing with correlation between woman's existence base & gender consciousness by inspecting self consciousness of Mitsitsuna's mother of the speaker formalized in the 『Kagerou's Diary』, the first lady diaries literature.

Unlike men's Chinese 'diary' true to the nature of a diary as the recording of facts, the reason of positioning women's 'diary' into 'literature', a kind of memoirs which a woman(or a man disguising as a woman) recollects her prior life, in other words, her own experiencing time at certain point and write it in Kana, is that recognition on her own life was reflected in the works.

When inspected 'diary' viewpoint of Mitsitsuna's mother in 『Kagerou's Diary』, unlike 'old stories', it's regarded that 'diary' written by a woman in Kana is a form of containing realistic contents & writing contents only related to her own personal matters unlike men's public Chinese diaries. However, despite of writing having a

new style of 'diaries' through restructuring her life, the original aim of a diary as 'recordings' wasn't excluded completely in the respect of being conscious of readers, so it's thought to be a reason women's selecting a form of 'diary'.

The aspect of self consciousness of Mitsitsuna's mother, a speaker formalized in 『Kagerou's Diary』,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expression of 'What am I'. Eventually, based on self consciousness of 'What am I', Mitsitsuna's mother came to have gender consciousness by recognizing her position as a woman objectively in the relation with Kaneie of her husband, and she could formalize her own realistic stories unlike those of ordinary people in the world into a style of 'diaries(literature)'. In order for Mitsitsuna's mother to reveal her true heart as it is, it's quite right in saying that establishment & acquisition of expressive means of her mother tongue of Kana were indispensable prerequisites.

Key words : Japanese woman literature, Diary, Diaries literature, Kagerou's Diary, Mitsitsuna's mother, Kana characters, Gender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